



2년여 공사 끝에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에 위용을 드러낸 전국 최대 규모의 'OK 라이스센터'. 연간 5만에 달하는 벼 처리용량을 갖춰 개방 위기를 넘은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 해남 국내 최대 RPC 완공

〈미국종합처리장〉

## 옥천농협 122억 투입 'OK 라이스 센터' 개장 '한눈에 반한 쌀' 등 고품질 쌀 연중 공급 계획

해남 옥천농협(조합장 윤경하)이 고품질 쌀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최첨단 미국 종합처리장(RPC)인 'OK 라이스 센터'를 20일 개장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전국 최고의 쌀로 검증받은 '한눈에 반한 쌀' 등 옥천농협쌀의 전국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RPC는 해남지역 벼 생산량의 50%를 연중 고품질쌀로 가공,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 농가소득을 높일뿐 아니라 다양한 홍보시스템을 통해 내방객들에게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줘 WTO·FTA 등에 따른 개방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K 라이스센터'는 옥천농협 투자본 59억원과 농협중앙회 차입금 50억원 등 122억원이 투입돼 설립됐다. 2만3천254㎡의 대지에 4천

963㎡의 지상 3층건물, 930㎡의 저온저장동 등을 갖추고 있다. 옥천농협은 지난 2003년 라이스센터 추진위를 구성, 3년여의 시장조사와 선진시설 벤치마킹 등을 거쳐 2006년 12월 착공을 한 뒤 2년 만에 준공하기에 이르렀다.

'OK 라이스센터'는 규모 뿐만 아니라 가공면에서도 타지역의 RPC와 차별화된 뛰어난 능력을 지닌다. 우선 기존 RPC의 5배 규모에 달하는 시간당 20t까지 가공할 수 있어 연간 처리용량은 지난해 1만 800t에서 올해 5만t, 매출액도 3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된다.

문기정 OK 라이스센터장은 "아울러 품종별 상품에 대한 철저한 분류가 가능한 '종합품질분석실'을 풀가동, 대형마트 등 시장이 요구하는 브랜드 쌀 물량을 적기에 공급해 옥천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고 밝혔다.

또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춘 이물질 제거시스템을 비롯해 에어샤워실, '먼지제로' 집진시설 등을 구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쌀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로봇에 의한 자동적 재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였으며, 우수 원료곡을 이듬해 하절기까지 저장할 수 있는 단열 저온저장시설을 새롭게 설치해 소비자들에게 연중 균일한 밥맛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윤경하 옥천농협 조합장은 "내방객들이 센터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견학통로와 홍보영상센터를 개설한 것도 OK 라이스센터의 자랑거리"라면서 "앞으로 인근 RPC 통합과 시설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브랜드쌀을 지속적으로 가공·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옥천농협은 대표 브랜드인 '한눈에 반한쌀'을 생산, 지난 2003년부터 전국소비자단체 등이 선정한 우수브랜드에 5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거주지 20km 이내 농지 양도세 감면

'자경농민'이 거주지와 연결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더라도 앞으로는 20km 이내에 떨어져 있는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중과 제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일 자경농민이 경작하다 양도한 농지에 대

해 농지 소재지와 농민 주소가 같은 시·군·구나 연결한 시·군·구인 경우 예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비사업용 중과 제외 대상토지로 보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관련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제도개선안을 재정경제부가 받아들여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

고 밝혔다.

고충위는 "거주지와 연결하지 않은 시·군·구에 있는 농지라도 직선거리 20km 이내라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비사업용 중과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이는 도농여건이 개선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연결지역 이외 지역에서 농사짓는 자경농민들이 과거보다 많아졌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금호, 항공기 타이어 수출한다

## 업계 최초 ... "2015년 세계 시장 점유율 5% 달성"

금호타이어(대표 오세철)가 국내 업계 최초로 민간 항공기용 타이어의 수출길을 열었다.

금호타이어는 19일 "싱가포르에서 한·미간 항공안전협정(BASA)이 공식 체결됨에 따라 민간 항공기용 타이어를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민항기용

타이어 부문에 대한 세부 투자계획과 상품화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조직을 편성하는 등 세계시장 진출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 상반기 인증을 목표로 건교부를 통해 미연방항공청(FAA) 기술 표준품질인증(TSO) 인증을 추진, 수출상의 마지막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또 보잉 IPC 등재추진 등 항공

기 제작업체의 자체승인을 거친 뒤 민항기용 타이어의 상품화에 나서 국내의 항공사에 판매한다는 구상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향후 그룹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에 공급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5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세계 민항기용 타이어 시장에서 5%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지역 거래 아파트 절반이상 '소형'

지난해 60㎡ 이하 인기

지난해 광주에서 거래된 아파트 두 채 가운데 한 채 이상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사람방닷컴(www.sarbang.com) 부동산팀이 지난해 광주에서 거래된 아파트 1만5천301건을 분석한 결과 8천44건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거래 건수의 52.3% 수준으로, 지난해 광주에서 거래된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소형이었던 셈이다. 이어 85㎡ 이하가 39.4%(6천33건), 85㎡ 초과 8.3%(1천264건) 등의 순이었다.

매매 가격은 5천만~9천만원이 57.7%(8천829건)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대 22.8%(3천489건), 5천만원 미만 16.3%(2천488건), 2억원 이상 3.2%(495건) 등이었다.

동별로는 광산구 운남동의 아파트 거래가 1천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금호동(917건) ▲광산구 신가동(813건) ▲도산동(753건) ▲서구 중앙동(751건) 등의 순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10월부터 소득·종부세 카드납부 가능

## 참여정부 마지막 閣議 41개 안건 처리 ... 200만원 한도

오는 10월부터는 개인 납세자가 납부하는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등 40여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무회의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펀드)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현행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9㎡이하로 완화해 올해 한해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된다.

포상·격려 목적의 공무원의여행,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원의여행의 경우 부처별로 사전에 타당성 여부 심사를 의무화한 '공무원의여행규정' 개정안,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연장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학생 기능경진대회

광주시교육청은 19일 광주전자공고에서 '전문계고 학생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했다. 20일까지 이를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광주 시내 11개 전문계고 학생 90여명이 참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9일 광주전자공고에서 '전문계고 학생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했다. 20일까지 이를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광주 시내 11개 전문계고 학생 90여명이 참가했다.

내령기자 mjna@kwangju.co.kr

## 전남 서남부 어음부도를 10년만에 최고

### 1월중 목포·해남 등 2%

지난달 전남서남부지역의 어음부도율이 9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19일 발표한 '1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어음부도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목포와 해남 등 전남 서남부의 어음부도율은 2.01%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인 지난해 12월(1.34%)

에 비해 0.6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지난 1998년 4월(2.09%) 이후 9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남 서남권의 부도율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지난해 12월 목포 N건설 부도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N건설은 2006년 시공능력평가액 131억원으로, 전국 1천300위권 규모의 업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금호, 상무지구에 '갤러리 303' 분양

금호건설은 오는 3월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에 신개념 미래주거단지 '갤러리 303'을 분양한다. (조감도)

'갤러리 303'은 금호건설이 해외에 건설하려는 아파트 스타일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해 건설하는 일명 '수출형 아파트'로,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총 364세대가 공급된다. 평균분양가는 3.3㎡당 930만원이다.

이 아파트는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주부 CEO를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뉴욕의 감성과 감각을 새롭게 해석한 '브리티쉬 하우스', '프렌치 메종', '뉴욕 로프트' 등 3가지 주거스타일에 따른 18가지 타입을 선보인다.



24시간 보안·택배·모닝콜 등의 무료서비스와 함께 하우스키핑·생활비서·메디컬서비스 등 다양한 유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입주민들은 단지 내 특급호텔의 숙박 및 식음료 할인 등 준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이 아파트의 광고대행사인 ㈜유퍼스트는 22일부터 사전예약자에 대한 상품설명회와 문화이벤트를 개최한다. 문의 062-511-1711.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IMPERIAL**

입매리얼 1주년  
50% 추가 30~20%  
특별할인

TEL: 384-6800

**50% 세일**

**Olivia Lauren**

TEL: 383-1107